

Total design

淨化槽는 建築인가 아닌가

金 眞 一 (漢陽工大教授)

1. 序 言

어떤 답이나 解明의 요청에 直面하게 되면, 우리는 어려운 것은 어려워서 答하기 어렵고 쉬운 것은 쉬워서 答하기 容易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非論理的인 말이지만 事實 우리는 범람하는 온갖 情報를 日常生活의 Rhythm 에서 적절한 어휘로 表現하는 習性에는 文化人답지 않게 숙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事의 非論理性을 아무도 突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관대한 習性은 社會의 非論理性을 助長하고, 한편 Business에서 自己를 뒤지게 한다는 것을 선뜻 認知하려 하지 않습니다. 其實 이런 類의 관대는 直接的인 對話가 가능한 어느 限定된 人員이라든가, 어떤 線까지의 時間이나 空間距離에서는 허용될 수 있으나 그 線이상은 寸刻의 여유나 한치도 융통될 수 없다는 현실을 直視해야 할 것입니다.

위의 뜻은 建築에서도 생각해 볼 일이라고 봅니다. 지난해 建設部 主管의 建築士 資格試驗 委員會에서 淨化槽 會社에 從事한 者의 經歷을 인정할 것이냐의 議題가 上程된 바가 있었습니다. 個로 보았을 때의 精確조가 建築일 수 있는냐의 問題로 論議가 集約된 것입니다. 每事가 細分化, 專門化되어 가고, 또 그것을 권장하는 時流이지만 이 問題에 우리는 순간 당혹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本人은 스스로 약간의 抵抗을 느끼면서도 肯定的으로 해석하자고 主張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問題를 肯定的으로 보자는 本人의 生覺의 背景을 展開시켜 보려고 합니다.

2. 建築에서의 実存과 觀念

日常生活에서 建築人의 思考는 다른 技術이나 芸術人보다 융통성이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일단 建築이라는 어떤 職業的인 범주에 接하면 그 넓고 柔하던 마음이 순식간에 움츠러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建築을 建築人의 生活과 認識의 전체로 혹은 絕對視하는 나머지 建築이 當면하고 있는 環境과 그 상황을 개 略적으로 받아들여서는 姿勢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는 마치 山에 가서 나무는 볼 수 있으나, 山은 볼 수 없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취급하는 造形藝術에서의 実存이라는 것은 오랜 觀念속에서 방황하고, 잉태하여 形成된 후에 비로서 하나의 凝集된 양상의 結果로 탄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構想自体를 作品活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作品의 創作過程에서 具體的인 活動보다 그 이전의 과정을 우리는 중요시하고, 또한 이를 높게 評 價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른바 作品의 構想過程은 冥想, 音樂, 山川의 自然風景, 또는 文獻 등 대단히 多樣的인 환경속에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創作에는 새로운 model 이나 方法을 끌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着想이나 이미지로 부터 시작되는데, 이에 直觀力이 필요합니다. 흔히 直觀力의 배양은 教育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골고루 부여된다는 期待를 하지만 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個人的인 冥想에서 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藝術을 知性과 靈感의 산물이라고도 합니다.

造型에서의 直感이나 靈感은 個와 總體의 調和가 전제 됩니다. 個體만의 어떤 作品의 價值는 制約이 따르는데, 特히 建築의 경우는 그 深度가 큽니다. 비근한 例로 住宅建設에서 地와 建築과의 關係를 重要視하는 것도 그 個體의 總體인 環境을 制度的으로 보장해 주려는 하나의 行政的인 手段입니다.

그렇다면 淨化槽를 總體的인 建築에서의 한 部分으로 볼 것인가, 혹은 總體의 庶子로 취급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物理에서의 分子는 서로 凝集하려 하는 성질로 物質을 형성하는데 人間의 感情은 同質에 있어서 조차 拒否 反應을 일으킵니다. 이점은 集團生活의 어려움이나 知性이 높은 層일수록 高독을 즐긴다는 것으로도 대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感情으로 인해서 實存建築에서 그 部分 部分의 眞否判定이 점점 혼미해져서, 마침내 그 全體像을 파악하려면 中間過程으로 생각해야 하는 時間이라는 中和劑가 필요합니다.

時間과 空間은 거리라는 尺度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래에 비약적으로 발전된 수송수단은 空間距離를 시간거리로 대치하여 그 한편을 無力化시켰습니다. 아몽든 時間과 空間距離는 모든 物體를 축소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물체의 추한 部分이나 결점을 지워버릴 수 있는 中和, 또는 치유 작용을 합니다. 인간에게 忘却이라는 선물도 바로 여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時間은 實存의 무엇을 보다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魔力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日常生活이나 行動에서 생기는 작은 일, 不幸이나 어떤 事件들이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당면하게 될 때 그것은 個人으로서 대단히 크고 원지 의의가 있음직한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기 쉽습니다. 이것이 建築의 個를 주장하게 되는 要因과 매우 흡사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질을 무시하면 마침내는 問題의 核心으로의 接近은 고사하고 너무나 鮮明한 個性으로 인해서 서로 共通點은 찾지 못하고 蟹氣樓를 어루만지며 격투하는 格이 될 것입니다.

淨化槽는 엄연히 實存된 總體의 部分임은 分明합니다. 그렇지만 觀念上 分解한 建築의 한 部分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建築人이 그 부분은 건축이나 하는 質問에는 선뜻 이를 肯定하려 하지 않는데 이것은 完成된 것만을 建築이라고 여기는 未完成, 바로 그 觀念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個의 기둥(柱)이나 보(梁)를 보고 우리가 建築이라고 할 수 있느냐하는 反問에도 答은 여전히 있습니다. 造型藝術의 創作活動이 그러하듯이 計劃이나 設計過程은 문제를 部分에서 全體로, 전체에서 部分으로 오고 가면서 核心으로 접근합니다. 部分이 없는 全體가 성립될 수 없고 全體를 전제하지 않는 部分은 그 의의를 상실합니다. 아시다시피 現代建築은 다양한 產業의 所산이요, 그것은 다양한 精神과 행위의 演出容器인 것입니다.

잠시 人間의 組織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조직에 있어서의 構成員인 개인은 조직 그 자체는 될 수 없으나 조직의 一員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때 그 一員이 항상 조직을 의식할 때 조직은 強하여집니다. 그러면서 그 個의 一員을 조직 자체로 昇華시키려는 생각의 착각마저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의 個는 分明히 個이상의 가능성은 물론입니다. 그러면서 그 個가 속해있는 總體를 돋보이게 하는데 政治社會에서 흔히 볼 수 있는 例입니다.

人間社會에서 그러한 生覺이 용이한 것은 人間은 어떤 位置나 場所에 있어서도 항상 Total 的인 存在이기 때문입니다. 또 大部分의 建築도 Totality 을 갖추고 있습니다.

分離 또는 分解되어 있는 상태의 個가 觀念上的 全体와 연계만으로도 個를 全体로 볼 수 있는 心眼이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아쉬움을 줍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心眼을 가졌더라면 그때는 주저없이 보(梁)나 기둥의 그 個는 建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때의 個의 조건이나 資格으로서는 total design으로서의 全体의 個라는 관념에도 일치해야 할 것입니다. 예로 치수·形態·機能·色彩 등에 있어서도 調和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깊은산에서 大木을 보고 기둥감, 또는 대들보감으로 全体像 構想의 部分으로 誘導연제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 大木이 total design上的 建築의 部分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때의 幻想은 實存이상의 藝術性을 가지는데 作業 과정에서 手法이나 순수성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일개 보잘것 없는 雜石으로 여겨 하마트면 땅속에 영영 파묻혀 버릴뻔 했던 어떤 돌의 特性을 찾아내는 것은 어떤 全体의 部分이나, 어떤 個체로서의 生命력을 認知한 순간에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被動的으로 他人에 認知되는 方法이나 기회가 無生物에서는 他動입니다. 이 경우 動物의 表皮가 보호색임은 先天의인 것이고, 異性에 대하여 이상한 동작이나 奇聲을 내는 것도 일종의 自己表現인 것입니다.

이것은 人間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人間의 創造는 他動的인 無生物이 어떤 total의 部分으로 적응 組合연제시킬 때 비약된 것이 일어납니다. 特히 學術研究에 있어서 他分野의 理論을 導入할 수만 있다면 거의 核爆發과도 같은 成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無生物과의 對話는 더 많은 가능성을 낳게하고 無限한 創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未知의 世界의 말과 文法, 또는 價值와 生存의 規律가 있어서, 그들과의 對話는 전혀 새로운 世界가 전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創造의 기쁨이나 의의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3. 建築의 偏狹性

원래 建築은 자기의 特異性이나 그 存在의 強調 때문에 他와의 共存性이나 그가 존재하는 주위환경에 대한 배려에는 매우 인색합니다.

이러한 폐단은 建築의 표현문제라든가 또는 狹義의 Design 문제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近代化過程에서 형성된 現代建築의 기본 體質이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建築人의 性格도 다분히 이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商街建物の facade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볼 때 建築은 자기 목적에는 대단히 충실하지만 그로 인해서 다른 것을 排他的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建築을 보호하는 환경에 까지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建築의 고식적인 思考를 우리가 사용하는 Scale의 경우에서 고찰하여 봅시다. 아시다시피 建物は 人間을 담는 그릇이라 하여 人体에서 유도된 feet나 yard 또는 尺이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尺이 아니라 Meter가 하나의 單位로 쓰여 집니다.

Meter는 1799년 佛國에서 地球 子午線의 4,000萬分之1을 기준으로하여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Meter는 건축에서 사용할 치수로서는 적절한 것이 될 수 없는 地球的이며 機械的인 Scale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훌륭한 尺이라는 人間的인 Scale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기계적인 Scale을 사용해야 합니까. 그것은 建築을 둘러싼 산업의 生産品의 단위가 모두 Meter로 되어있고, 우리는 그 生産品을 建築의 매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建築物의 내부에 수용되는 各種機器의 경우도 meter의 領域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은 作品의 構想에서 구성에 이르기 까지 적지않은 혼란을 建築人에게 주었을 뿐 아니라 건축의 各部位에서 meter를 사용함으로써의 치수記入上的 不合理性을 우리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예로 Sink가 81cm라든가 窓台는 79cm라는 따위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즉 전통적으로 쓰여온 尺이라는 그 單位의 타당성과 利便性의 基準이 급격한 産業으로 인해 변도하여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것의 純糶性과 우리 것의 科學性을 지금도 굳게 신봉하고 있으나 더 높은 次元에서의 科學性과 이변성과 대결할 만한 理論을 전개시키지 못하고, 굴복하여 Meter를 常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또다른 변혁이 우리 建築에 언제 던져질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예측은 됩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없다는 建築은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간에 새로운 樣相으로 변질할 것입니다. 그 하나의 예로 組立式 住宅은 훌륭한 前奏曲인 셈입니다. 手工業的 思考와 건설과정이 마치 belt conveyor에 실린 어떤 個체처럼 만들어지고 組立되는데도 우리는 태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을 옳게 지키고 이해하고 계승하여 발전시키려는 使命感의 결여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건축이 현재의 상태에서 静止함을 바라는 것은 決코 아닙니다. 變化는 自然의 섭리인 것입니다. 다만 建築의 樣相이 타의에 의해 변하게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 進路를 제시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요, 의당 그래야만 尺에서 meter로 바뀐 것과 같은 쇼크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여건 속에서만이 傳統있는 建築이 創造될 것입니다.

4. 個와 全体의 調和

部分과 全体는 個체의 集合으로 읊기면, 同種인 個체의 集合과 複合的 집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住宅의 경우는 房의 集合이고 個체의 집합은 集合住宅이나 광의적인 單一機能인 學校施設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建築의 巨大化는 이러한 類의 個체의 집합이 아니라, 複合的인 집합을 民衆 驛舍 Hotel+事務所+百貨店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一次的으로 外形上 Super block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復數의 地主와 복수의 建物主, 복수의 임대자, 복수의 관리자들이 있게되어 대단히 非效率的인 건물이 되고 때로는 빈번한 災難을 입게 되는데, 그 예가 바로 서울의 大旺코너인 것입니다.

서두의 淨化槽는 위의 個체의 集合에서나 複合的 집합의 個체에 있어서도 不可欠의 機能일 뿐 아니라 都心과 같은 밀집지대에 있어서는 建築構造體의 완전한 부분으로서 훌륭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淨化槽는 個의 建物과 각기능의 集合體인 都市와의 하나의 閘門(Lock)인 것입니다. 複合集合의 경우 집합의 구성요소인 單位間에는 機能的 연결이나 主体間的 hierarchy에 있어서도 연대는 피하는 것이 建築計劃의 原則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機能的 grouping이라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이 原則은 構造的인 측면에 있어서도 例外는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의 機能과 기능사이에 필요한 存在로 淨化槽를 보아도 될 것입니다. 아뭏든 建築에서 건축의 순수성의 主張으로 淨化槽를 外面한다면 正화조는 都市的인 側面的 한 要素가 되어야 할텐데 그 結果가 과연 建築에 이롭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속 不明의 기능인 淨化槽를 建築에 흡수하는 것이 本人은 현명한 생각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建築의 micro적인 측면에서 淨化槽를 고찰하였는데, 다음은 건축의 macro적인 측면에서 現代建築을 社會가 의식한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一次大戰후 유럽에 대두되었던 社會問題의 하나인 住宅問題는 CIAM(近代建築國際會議)가 취급 했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으뜸가는 社會問題의 하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 문제를 CIAM 최초의 과제중의 하나로 채택하였는데, 그들은 住宅의 plan 문제를 研究하기로 했습니다. 그후 각국에서 실천하고 2년후 그 成果를 가지고 다시 토의한 결과, 個個(1棟식)의 plan은 훌륭하다 하더라도 垆地分割이 잘 안 되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會合에서 검토한 결과, 문제는 都市計劃에 있다는 결론을 얻어 憲章으로 까지 발전시켰습니다. 오늘날 각국의 都市計劃의 法制에서 基本的인 점은 그들 CIAM이 제창했던 事項들이 적지않게 포함 되었습니다.

그런데 plan(計劃)이라는 것은 경제나 政治에도 있는 政策입니다. 이것은 작게는 家族計劃에서부터 크게는 國際關係에도 있으며, 역시 建築에서 처럼 어떻게 해야겠다는 方法을 정하는 하나의 手段이기도 합니다.

간략히 줄여 말하면 CIAM의 結論이 個로서의 機能의 限界에서 個의 集合으로 都市計劃이라는 수단에 이른 것입니다.

서울市 建築委員會에서는 주로 個의 建築을 여러 側面에서 다루어 봅니다. 어떤 委員은 同質의 個와 個의 關係를 지적하고 異質的인 어떤 個, 즉 人間과 車輛의 approach와 道路와의 關係를 直感的으로 재치있게 지적 修正하는데 그런 일들은 대단히 유익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시제말로 환경의 check가 되는데 個의 存立이 이의 환경에 영합, 적응하지 못하면 消滅의 위기에 처해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法則은 植物이나 動物의 生態學에서 개체는 自然속의 一箇이며, 그 個體는 그가 존재하는 전체 환경과는 어떤 상관관계에 있으므로 그의 調和를 유지못하면 소멸한다고 합니다.

人間에게는 그렇게 '된다', '바꾼다'가 아니면 '바뀌었다', '되어진다'라고 하는 能動的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反射로서의 개체와 全体(環境)의 관계가 새로이 성립됩니다. 그런데 人間の 能動的인 요소에는 서로 다른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예로 하나의 개체를 둘러싼 全体(환경)에서 調和되지 못함을 느낄 때, 그 전체를 바꾸어 個體에 적응되게끔 밖으로 作用하는 수가 있습니다. 또는, 하나의 個體 스스로가 주어진 全体에 順應하려는 속으로 향하는 努力이 있습니다. 이것이 神이 人間에게 주신 하나의 特權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特權을 남용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지혜로 이룩한 밖으로 또는 안으로 향하는 힘으로 全体인 환경을 改善하고 改造한다는 노력이 오히려 전체의 파괴로 몰고왔다는 사실을 깨달은 時點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個體는 全体를 위해 겸허한 姿勢로 임해야겠다는 하나의 반성입니다. 오늘날 都市環境에서 色彩가 크게 인식되고 문제시 되는 것도 바로 自然과 人工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환경문제가 대두된 것입니다.

人間이 좀더 겸허하였다면 自然과 人工의 調和되는 地點을 미리 설정하여, 우리는 이 均衡을 고수했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自然 즉 神과 人間の 約束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調和라는 뜻은 대단히 의의 깊은 말입니다. 發展하는 어떤 企業體나 國家에서 技術革新이나 進歩, 發展을 제창하고 있으나 어느 時點에서는 반드시 調和를 찾게 될 것입니다. 많은 직장에서 人和라는 社訓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社員의 個와 個, 個와 總體와의 調和라는 또다른 표현에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淨化槽를 지금 상태로 방치하면 그 個는 자기 存立을 위해서 總體인 建築에 어떤 禍를 안겨 줄지도 모릅니다. 이 버릇없고 못난 迷兒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建築의 部分으로 흡수하는 일이 명실상부한 Total design으로 建築을 昇華시키는 일의 하나라고 本人은 감히 主張하는 바입니다.

新 刊

要点 建築計劃

著 者 金 眞 一 工博 漢陽工大教授

發 行 普成文化社 總 販 良友堂 74-4292

印 刷 (株) 새한精版社 價 格 2,400 원

目 次

前 編	後 編
第1章 計劃과 創造의 一致	第1章 集合住宅
2章 設計製圖	2章 事務所建築
3章 動線計劃	3章 百貨店·商店建築
4章 駐車場	4章 호텔建築
5章 室內裝飾	5章 레스토랑建築
6章 設備·避難計劃	6章 劇場·映画館建築
7章 衛生設備	7章 學校建築
	8章 病院建築
	9章 工場建築
	10章 建築史